

창조도시 대전만들기 워크숍 개최

대전발전연구원 육동일 원장은 11월 29일(목) 창조도시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창조도시 대전의 발전방향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시민이 가꾸고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대전만들기’를 주제로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도시발전모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전이 창조도시로 나아가야 하는 당위성을 인식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워크숍에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이의연 교수,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황재훈 교수, 동아방송예술대학 예술학부 김상교 교수, 대전시 정책프로젝트팀 창조도시 담당자가 발표자로 창조도시 발전의 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 대전이 창조도시로 나가기 위한 기본방향, 창조도시를 위한 문화전략인 지역축제의 발전적 활용, 창조도시의 전략적 접근 방법과 시민과 함께 협력적인 파트너십 구축 등의 의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 토론자로 대전 충남 녹색연합 박정현 사무처장, 한밭대학교 도시공학부 박천보 교수, 대전대학교 신천식 객원교수, 대전시 정책프로젝트팀 양승찬 팀장이 참석하였다.

대전 대도시권 G9 자치단체가 협력 증진방안 발표

대전발전연구원 육동일 원장은 12월 4

일 열린 ‘G9 기관장 회의’에서 ‘대전 대도시권 G9자치단체간 협력증진방안’이란 제목의 연구발표를 통해 “G9간 협력사업 추진이 국가의 제도적 미비는 물론 각 자치단체 입장에서도 조례나 규칙 등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협력기반이 매우 취약하다”고 밝혔다. 또 “홍보가 지속적이지 못하고 단조로운 데다 협력과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심의하거나 평가하는 자치단체가 없고 과제의 발굴과정에 지역주민단체나 전문가들의 참여가 거의 없는 등 체계성도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G9간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의 토대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시도 연구원협의회 부회장 피선



대전발전연구원 육동일 원장은 12월 14일 유성리베라 호텔에서 개최된 2007 전국 시도연구원 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제13대 부회장으로 피선되었다.